CKT #80

모든 력량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건설에 바치자!

선전원수책

SHIPPING ADVICE NO. 2018
BOX 2
ITEM 271.10

No. 7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발행
1948·7

차 례

一、八·一五해방 三주년기념에 제하여
선전원에게주는 재료……(一)

二、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거족적 구국대책……(八一)

八·一五해방 三주년 기념에

제하여 선전원에게주는 재료

영웅적 쏘련군대가 우리민족을 장구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통치기반에서 자유해방시켜준지도 벌써 만三년이 되게된다。

전세계인류를 력사상에 류례없는 암흑세계에 몰아넣으려던 히틀러강도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쏘련군대와 쏘련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멸망되고 제二차세계대전이 종결을 고한지도 벌써 三년이 된다。 그동안 세계인민들은 전후의 새로운민주질서를 확립하며 전쟁의 피해들을 복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확립하기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오고있다。

그러나 전후에있어서 히틀러를 대신하여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이 책동으로써 세계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와 전반적 민주질서가 수립되지 못하였다。

희랍 파레스치나 중국 인도네시야 등등 에서는 아직도 자

유와해방을 위하여 인민들이 피를 흘리고있으며 세계 도처에서、새로운 전쟁선동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있다。

자유와해방을 부르짖는 수백 수천만 근로인민들의 파업과 시위가 서구라파와 동방각국 그리고 신대륙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있으며 이에대하여 동족을 학살하는 제국주의헌병 경찰들이 총소리가 더욱 소란하여가고있다。

대전이 끝난이후 오늘까지 국제정세는 날이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첨예하여져왔다。

그리하여、오늘 우리조선인민들은 八·一五해방二주년 당시에 비하여서도 또한층 예리하고 복잡한 국제국내정세속에서 八·一五해방 三주년을 맞이하게된다。

一、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국제정세

지난一년동안에 국제정세에는 수많은 중요사변들이 있었다。

지난 一년동안 국제정세에있는 수많은중요사변들은 모다가 민주와 반민주의 가혹하고 긴장한 투쟁의 표현이였다。

지난 一년동안의 국제정세는 무엇을 말하여주고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소위 투루맨 마ー샬정책의 파탄과 마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 침략정책의 로골화이다。

지난一년간의 사변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침략정책이 파렴치하게 로골화하여진것으로써 특징된다。

둘째로는 지난一년동안 쏘련을선두로하여 세계민주력량은 어느때보다도 통일과 단결을 더욱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분해하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민주를 고수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다。

1、 투루맨ㅣ마ㅣ샬안의 파탄과 미제국주의 략탈적침략정책의 로골화

대전과정에서 五백二十여딸라라는 방대한 초과리윤을 획득한 미독점자본가들은 대전이 끝난이후에 있어서도 이러한 초과리윤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이 독점리윤을 가지고 대전과정에서 파괴되고 피폐한 타국의 경제적 곤난을 리용하여 세계를 자기네의 딸라에 종속시키려고 가진 책동을 다하여 왔다。

이러한 그들의 정책은 一九四七년三월十二일 투루맨의 국회에대한 교서와 동년 六월五일 하ㅣ바드 대학에서의 마ㅣ

샬의 연설로써 소위 투루맨—마—샬안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트루맨—마—샬안은 그 발표당시부터 세계인민의 반대와 배격을 받았으며 현재에와서는 파탄의 위기가 심각하여졌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딸라를 투자하고있는 중국과 희랍에 있어서 최근一년간에 그들의 설계가 날로 파탄되어가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볼수있다。 중국에있어서는 一九四七년 추기공세(秋期攻勢)이후 단지 만주와 화북지대뿐만 아니라。 장개석의 근거지인 화중(華中) 화남(華南) 일때에까지 중국인민해방군의 세력이 지배하게되였다。

미국딸라의 련속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는 총파탄의 위기에。 봉착하여。 최근에와서는 백미 六〇키로에 一

천六백五十만원으로 되었으며 一九四七년도 장개석정부의 적자(赤字) 지출은 九○%에 달하게되었다。 그리하여 괴군에는 百만원 짜리지폐를 발간하게되었다。

미국이 직접 경제사절단과 군사사절단을 주재시키고 군대를 파견하여 내정을 전체적으로 간섭하고있는 희랍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一九四七년 十二월말에와서 희랍의 三분지二의 지역에는 자유희랍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희랍인민해방군의 진공에 당황한 희랍왕당파시스트들은 괴군에와서 히틀러이상의 인민학살정책을 강행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정권을유지할수없게되었다。

소위 트루맨─마─샬정책의 실패와 미제국주의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는 미국내 경제상태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一九四五년에서 一九四七년까지에 미(米)국점자본의 리윤은 八十八억딸라나 증가되었다。그러나 一九四七년에와서 로동임금의 실수입은 四五년도에 비하여 一五%나저하되었다。

一九四七년말까지 독점자본가들의 창고속에는 五百억달라의 물자와 상품이 싸여있었으나 미독점자본가들의 최대의 발악과 로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강제차관과 수출은 뜻대로 증가되지않고있으며 또한 근로대중의 구매력 저하로써 국내시장은 날로 줄어가고있다。一九四七년十월에 이르러 미국인민들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부채는 一二〇억딸라를 돌파하였으며 실업자는 五百만을 초과하여 불원한 장래에 六百내지 八百만에 이르리라고 예견되고있다。

미국에서는 一九四七년一년간에 三千三百건이상의 파업이 있었으며 二百二十만명 이상이 이에 참가하였는바 이것은 一九三五년에서부터 一九三九년까지에 이르는 五년간의 발생한 파업수총계의 二배이상이나되는것이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위기와 파탄을 면하기위하여 지난 一년간 발악적으로 자기네의 팽창정책을 로골화하여왔다。

지난 一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이 취하여온 정책들은 어떠한가？

첫째 영 불제국주의자들과 기타 군소국가들을 강압하여 그 국가들의 모든 대내 대외정책을 미독점자본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그들을 동원하여 반동세력을 형성하고 소위「세

계정부」를 운운하며 그앞장에서서「세계는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야한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말하고있다。

중국 희랍 베르기등 약소국가에대한 내정간섭은 말할것도 없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영국과 불란서 이태리등에 대하여서도 극도의 내정간섭을 강화하고있다。

금년四월 이태리선거에 비법적으로 적극 간섭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 런던六국회의에서 독일문제와 특히 루ㅣ르문제를 결정함에있어서「만일 불란서가 미국의 계획에 복종하지 않을때에는 마ㅣ샬안에의한「원조」를 중지한다」고 불란서반동파를 강압하여 불란서에대하여서는 력사적으로나 또는 장래에 있어서나 가장 엄중한 사활적리해관계를 가진 독일문제와 루ㅣ르문제를 미제국주의자의 리익에 부합되게 결정

하였다。

둘째로 이와같이 영 불을 비롯하여 자본주의 제국가들을 밟고올라선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네의 팽창정책과 세계제패의 야망앞에 철옹성같이 막아서서 세계인류의 평화와 대소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고수하고있는것은 쏘련을 위시한 세계민주력량이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히틀리의 대를이어 발광적인 반쏘 반공선전과 악선동을 하기시작하였으며 신민주주의국가들을 비방하기 시작하였다。

대전시기에 있어서 히틀리와의 관계를 은폐하려던 「려자의 위조」사건 쏘미관계에 편해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음모와 파렴치한 문건들 미국에있어서의 반공산주의 「문드트법안」의 조작등이 이것을 여실히 말하여준다。또한 소위 「서

부뿔럭」을 형성하여 쏘련과 신민주주의국가를 반대하는 군자동맹을 조직한것과 一九四七년 一〇월에 치리·부라질등 앞잽이들을 시켜서 소위 「대쏘외교단절」을 하게한것등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대쏘정책을 엄연히 증명하여주고있다。

셋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의 팽창정책이 파탄되어가며 이에 반대하여 민주력량이 날로 장성함에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전당시와 대전이후에 세계평화와 안전을위하여 련합국간에 체결된 일체의 국제공약과 협정 국제헌장들의 실행과 준수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며 파렴치한 자기네의 본질을 숨김없이 들어내놓기 시작하였다。

一九四七년말 제二차 유·엔총회에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쏘련과 신민주주의국가들의 참가도없이 소위 「유·엔소총회」

라는비법적조직을 날조한것 一九四八년 三월의 런던三국회의와 六월의 런던六국회의등으로써 독일에관한 포스땀 얄타협정들을 공공연히 파기한것 조선에관한 모스크바 三상결정을 파탄시킨것등이 이것을 말하여준다。

네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공약과 협정들을 파탄시킬뿐만아니라 로골적으로 새로운전쟁을 준비하며 선동하여 일본과 독일을 재무장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반적 군비축소를 반대할뿐만아니라 전후에있어서 열광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며 의무징병제실시를 기도하고있다、 一九四七년도 미국예산지출에있어서 六六%가 군비확장에 활당된사실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엄연한 증명으로된다。

뿐만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빨칸에 있어서는 희랍 토의기 서구라파에 있어서는 독일 동방에 있어서는 일본과 남조선을 군자전략상 거점으로 만들고있으며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있다。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독일파시스트군대와 독일의 군사잠재세력을 적극 보호 부활시키고 있으며 서부독일을 소위「서부뽈럭」과 마―샬안에 포함시키려고하고있다。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각종방법으로 양성하고있으며 일본의 군자공업을 부활시키고있으며 일본까지도 마―샬안에 포함시키려고하고있다。

이와함께 그들은 로골적으로 대쏘 침략을 운운하며「제三차세계대전불가피론」을 광포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을 위혁으로 복종시키려고 광분하고있다。

다섯째로 최근 一년간에 나타난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의 특징은 그들의 파시스트의 길을걸으면서 타국내에 자기군대를 강제로 계속주둔시키며 무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의 독립과 통일을 방해하며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월남 인도 희랍 남조선등에서 민족분렬을 책동하며 이나라들의 로동운동을 탄압 분렬하는것이다。

특히 서부독일분활을 위한 금년 六월의 소위 런던 六국회의와 서부독일에서 단독적 화폐개혁과 남조선단독선거는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정책을 가장 엄연히 증명하여주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각민족내의 반역자들을 리용하여 도처에서 민족분렬을 책동하는 한편 우익사회주의자들을 동원하여

소위 「十六개국사회당회의」 등으로써 로동운동을 분렬하며 로동계급의 유일한 국제적 조직인 국제직업련맹을 분활하려고 가진책동을다하며 도처에서 반동로동단체를 조직해놓으며 타국내의 파업과시위를 직접 자기의 무력으로써 탄압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세계제국주의자들의괴수로되고있다。

여섯째로 미제국주의자들도 자기네의 팽창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써 사상전선에서 맹렬한 책동을 전개하고있다。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미국식자유」「미국식생활풍습」을 선전하면서 온갖 부르죠아반동사상을 전파하기에 전력을 다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모든 진보적 언론 출판기관을 탄압하며 진보적 문학 예술인 학자들의 활동을 탄압하며 소위 종교의 미명하에서 수많은 스파이와 미국사상의

전저원들을 각국에 선보사의 형식으로 파견하고있다。 이상의 모든책동은 최근에와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느때보다도 로골적으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며 선동하며 세계반동의 괴수로써 파렴치한 세계지배의 야욕에 날뛰고있는것을 말하여준다。

2、세계민주력량의 장성과 단결

미제국주의를 선두로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새로운 책동의 로골화하여짐에 대하여 쏘련을 선두로한 세계민주력량은 평화와 자유 민주와 독립을위하여 싸우는 전세계의 모든 민주력량을 더욱 강력히 결속하며 통일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정책와 책동을 적극적으로 폭로 분쇄하며

세계인민의 평화와 민주자유를 완강히 고수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一년동안의 국제정세에 나타난 제사변들로써 쏘련을 선두로한 세계민주력량의 작년 八·一五당시에 비하여서도 또다시 일층 강력히 장성되었으며 특히 단결과결속은 강화하고있는것을 알수있다。

그것은 첫째로 쏘련의 급속한 전후복구와 대외정책에 대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열렬한 지지와 쏘련의 신뢰의장성이다。

쏘련은 국내적으로는 쓰딸린적 제四차 五개년계획의 제二년도인 一九四七년도의 계획을 공업부문의 一〇三、五%를 비롯하여 각부문에서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제三년도의 계획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공황과 실업을 모르는

쏘련인민은 五개년계획을 四개년에라는 구호밑에서 영웅적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하고있으며 공업수준은 이미 一九四四년도 수준을 릉가하고있다。

평화애호와 국제적협조 대소민족의 동등과 자유를 원측으로하는 쏘련의 전통적대외정책은 날이 갈수록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거대한신망과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다。

제二차유・엔총회와 안전보장리사회와 기타 국제회의에서의 쏘련대표의 시종일관한 주장과 립장 쏘미관계에 련해한 쏘련정부의 제문전등은 평화를 애호하는 전세계인민에게 거대한 신심을주었다。 특히 쏘、분조약체결을 축하하는 쏘딸린대원수의 연설과 분란을위시하여 루마니아 항가리야등에대한 배상금삭감 파레스치나문제에대한 진척한 로력 독일의 민주화

와 통일조선독립과 자유를위한 완강한 투쟁등은 자유와 독립을위하여 싸우는 전세계 약소민족들에게 쏘련만이 진정으로 약소민족의 해방과 자유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성벽이라는것을 더욱 명백히 증명하여주었다。

둘째로 최근일년간에있어서 세계민주력량의 장성과 단결은 一九四七년九월말 파란에서 개최되였던 구라파 수개국공산당회의와 그의 보도국설치、쏘련 급신민주주의국가들 상호간의 각종 우호친선조약 원조—통상조약들의 체결등이다。

특히 금년 六월二十四일 와르샤에서 개최되였던 쏘련 파란 체호슬로바끼아 불가리야 항가리야등 八개국회의는 쏘련을 수위로한 구라파의 제민주주의국가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완전히 통일된 보조하에서 단결 결속되어

세계평화와 민주를위하여 강력히 투쟁하고 있는것을 말하여준다。

셋째로는 신민주주의국가들의 발전이다。 파란 체호슬로바끼아 불가리야 항가리야등 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각각 二年개년 혹은 五개년간의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고 一九四七년도에있어서 그 첫해의 계획들을 모다 승리적으로 완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발가가 침범할여지가없는 자립적 인민경제 건설을 확고히건설하기 시작하였다。

一九四七년말 루마니야에서와 정변과。 그후의선거승리 一九四八년六월 체호슬로바끼아 정변과 선거의승리등은 신민주주의 제국가에서 모든 자본주의적 반동세력과 치렬한 투쟁을 하면서 로동계급을 선두로 견인민이 결속되어 일로 사회주

의 건설을향하여 전진하고있는것을 말하여준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 우익사회주의 반동파들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항가리야 루마니야 체호슬로바끼야 불가리야등에서 사회민주당들이 공산당과 합당하며 근로대중의 유일당들을 결성한 사실들은 최근 一년간에있어서 세계민주력량의 장성과 단결을 말하는 중요한사변의하나이다。

넷째로 최근 一년간에 민주력량이 장성되고 단결된것은 세계로동운동의 장성과 약소민족해방운동의 적극적공세와 승리적 전과 미국내에서의 제삼당 세력의 생동에서도 볼수있다。

一九四七년말 불란서 이태리등에 일어난 파업과 그후계속되는 각자본주의 국가내의 파업은 최근 一년간에 로동계급을 핵심으로하는 각국의 근로인민들이 침략과예속 착취와여

압을 반대하여 더욱견결히 투쟁하고있는것을 말하여준다。

一九四八년도에 들어서면서 더욱 광대한 지역에서 전면적 공세로 들어간 중국인민해방군의투쟁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인도네시아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월남 비루마에서의 민족해방운동 최근 마레와 비률빈 그리고 서방에서까지 일어나는 무장폭동 파레스치나에서의 유태인들의투쟁은 최근一년간 국제정세에서 약소민족해방운동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고있음을 말하여준다。

이상최근 국제정세에있는 사변들은 작년 八·一五당시에 비하여서도 오늘에와서 국제정세는 더욱 예리하고 긴장하여졌으며 민주와 반민주의투쟁이 날로긴장하여지고 있음을 말하여준다。

또한 최근一년간의 국제정세에 있은사변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허세와 추악한정체가 더욱 폭로되었으며 그러므로써 그들의 발악이 로골화하여간다는것과 이에대하여 세계민주력량이 더욱강화 결속되고있으며 세계는 인민의 요구하는 방향으로 인민의 승리의길로 더욱 확고히나가고있음을 말하여준다。

이상과같은 국제정세는 우리조국에 어떻게 반영되고있으며 조선인민은 어떠한 국제정세속에서 민족해방의 명절 八●一五 제三주년을 맞이하게되는가?

二、해방 三주년을 맞이하는 국내정세

국제정세가 극히 복잡첨예함과 같이 해방三주년을 맞이하

는 우리조국의 국내정세도 극히 복잡하고 예리하다。

인공적이며 림시적인 三八선을 영구한 국경으로 변화시키어 남조선을 자기의식민지로 변화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책과 그들의 정책을 원조하여주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행동으로써 우리조국은 해방된지 三년이되도록 아직 남북두지역으로 분리되어 각각 상의한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1、조국의통일과 민주독립의 근거지로써의 북조선의 민주발전

지난一년동안 북조선인민들은 어느때보다도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북조선민주건설을 튼튼히하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완강히 틀어쥐고 투쟁하여왔다。

국제 국내정세가 첨예하여질사록 조선에대한 미제국주의자

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로골화하여갈수록 리승만 괴뢰정부도 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책동이 흉악하여질사록 북조선인민들은 우리조국과 민족에대한 엄숙한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자각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에대한 열화같은 적개심을가지고 북조선민주건설에 전력을 다하여왔으며 통일정부수립에 매진하여왔다。

작년 八·一五이후 一년동안에 북조선인민들이 쟁취한 거대한 성과들은 어떠한것들인가?

그것은 위선 경제적으로는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완수와 신구화폐교환사업이며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승리적실행과 이에따르는 물가가격의 저하 인민생활의 향상이다。

정치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제정과 그의실시

이며 남북련석회의의 거대한 성과와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에관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 및 북조선인민회의 결정이며 남조선망국단선배격운동의 승리적 수행이다。

또한 북조선민주건설의 성과와 우리민족의 자주와 독립과 자유를 무력으로 보위할 인민군대의 창설이 지난 一년간의 북조선민주건설에서 중요한 위업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모든 투쟁과 승리를 통하여 북조선민주건설은 작년 八·一五당시에 비하여서도 더욱 거대한 발전을 하였으며 그리하여 오늘에와서 우리조국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었으며 불과 三년전과 대비할때는 실로 수세기의 차이를 가지게되었다。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와서 북조선은 반봉건적인

락후한 식민지사회로부터 넘은 「부르죠아민주주의」 사회보다도 진보적인 새로운 인민적민주주의 사회로 전변되었다。

오늘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은 일제시대나 또는 현재의 남조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전변되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에서 우리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고수 촉진하는 기지로되었으며 단지 우리조국발전의 기지로만된것이 아니라 동방제약소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찬란한 지표이며 희망이며 등대로 되고있다。

불과 三년동안에 북조선이 이와같이 거대한 발전을하게된 근본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약소민족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우리조국의 해방의 은인인 쏘련군대가 우리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한 방조와 성원을

주어왔기때문이다。

영웅적 쏘련군대는 직접 우리조국강토에서 피를 흘리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을 구축하고 우리민족을 장구한 일본식민지통치에서 해방시켜주었을뿐만아니라 북조선에 진주한이래 우리민족의 독립과 통일과 민주발전을위하여 실로 성의에넘치는 일관한 방조와 성원을 다하여왔다。

그렇기때문에 해방三주년을 맞이하여 지난三년간의 전변을 총화하면서 조선인민들이 쏘련군대에게 영원한 영예를 드리며 그의 위대한 수령인 쓰딸린대원수에게 전인민적감자를 다지보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아니다。

세계약소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싸우는 쏘련의 정책은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의 민주건설의 제성과들에

서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와서 북조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본질적 전변을하였는가?

위선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적 착취를 기초로한 생산관계는 기본적으로 숙청되었으며 인민의 리익을 본위로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생산관계가 수립되었다。

식민지적 착취의 철쇄는 분쇄되고 중요산업은 인민의 소유로되어 날로발전되고있다。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는 숙청되었으며 농민은 자기의 땅을 가진 토지의 주인으로되어 농촌경리는 급격히 발전되며 공업과의 련계를 더욱긴밀히 가지게되였다。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적 경제체계의 락후성과 기형성은

극복되고있으며 모든경제건설과 운명을 인민과 국가의 리익에 부합되게 조직할수있는 기본적 제조건이 확보되였다。

제반민주개혁의 결과에 근로인민들의 생산의욕은 우리민족력사상에 볼수없던 고도의 수준으로 앙양되고있으며 경제건설과 운영에대한 근로인민의 경험과 기술은 급진적으로 향상되고있으며 민족자립경제 건설에대한 자신성과 자부심은 날로 확고하여지고있다。

일제의 식민지적 임금노예로 인간이하의 천대와 착취를 당하던 로동자들은 식민지적 착취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였으며 국가건설의 주력부대로 되였으며 인민정권의 보호 원조하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창조적 로력을 다할수있는 새로운 로동계급으로 되였다。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동파들의 경제적기반은 (소탕되었으며 어떠한자이고 다시자기개인의손에 국가의경제력을 독점하고 인민대중을 착취하며 지배하며 정치적전횡을 다할수있는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소멸되었다。

민족자립경제 건설은 급격한 발전을 하게되었으며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상품과 딸라도 침범할수없는 정치 경제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었다。

북조선인민들은 어떠한 투쟁을 거치어 오늘과같은 튼튼한 민족자립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여왔는가?

해방전 일제들은 十九개소의 수력발전소를 파괴하였으며 六十四개소의 탄광과 광산을 침수시키고 百七十八개소의 탄광과 광산을 파괴혹은 부분적으로 침수시켰으며 四十八개의

기업소들을 대파하였으며 흥남공장 성진제강 청진제철 황해제철 평양화학공장등 중요 기업소들을 파괴하였으며 철도운수기관을 마비상태에 빠틀여 놓았던것이다。뿐만아니라 일제의 탄압하에서 우리들에게는 이렇다할 기술자 기사들이 없었으며 심지어 공장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있는지도 몰랐다。

참말로 우리들이 일제에게서 물려받은것은「단지 파괴된공장 혼란된 운수기관 파산당한 농촌경제 장부만남은 국고금」이였다。(김일성)

이러한 경제적 허허우에서 북조선인민들은 조국의 운명을 걸머지고「없는것을 새로창조하고」부족한것을 부족한대로 모든 곤난과 장애를 이를 악물고 뚫고나아가며(김일성) 장

엄한 조국창건의 길에 들어섰던것이다。

쏘련군대가 일제들이 가졌던 모든 기업소 공장들을 조선인민의 것으로 넘겨주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거대하고 곤난한 사업에 있어서 조선인민에게준 진정한 원조의 결과는 조국창건의 길에 들어선 조선인민들에게 오늘과같은 성과를 가져오게하였다。

一九四七년 一월一일에와서는 八백二十二개의 기업소가 작업하게 되었으며 三천五백여명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게되었으며 뒤이어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우리민족 력사상에 처음이며 민족자립경제의 기초를 튼튼히하는 첫 출발인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은 전북조선

인민의 거대한 애국적 열정속에서 산업부문의 一〇二、五%를 비롯하여 각부문에서 승리적으로 초과완수되였으며 농산부문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도에 와서 一九四六년도보다 립곡만 十八만톤이나 더 증수하였으며 「북조선을 량곡이 부족되던지대로부터 량곡의 여유가있는 지대로전환」(김일성)시키었다。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승리적 성과위에서 북조선인민들은 지금 一九四八년도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전인민적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인민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쏘련군대와 쏘련정부는 기술로써 자재로 백방의 성의있는 원조를 당하여주어왔다。

이러한 결과 오늘에와서 북조선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일

제시대에는 설에서 만져보지도 못하던 공장의 중요시설과 기관을 자기손으로 운전하게 되였으며 일제시대에 조선에서는 만들지못하던 공업품들을 북조선에서 만들게되였으며 조선로동계급의 손으로 강철 선철을 만들며 변압기 발동기를을 만들게되였다。

북조선인민들이 지난三년간 경제건설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는가하는것은 현재에있어서 기계공업과같은 산업부문은 一九四四년도수준에비하여서 一三二%로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수있다。

북조선인민들은 일제에게서 물려받은 파괴되고 기형적인 산업을,복구하였을뿐만 아니라 어떤부문에 있어서는 일제시대를 능가하여 발전시키게까지 되였다。

이러한 인민경제 발전은 북조선인민들의 물질생활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지난一년간에 북조선인민의 물질생활수준은 특별히 향상되였다。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초과완수와 一九四七년말의 신구화폐교환사업은 근로인민들의 실지임금을 현저히 향상시키였으며 화폐의 가치를 제고하였다。

또한 一九四八년 六월一일부터 실시된 국가가격 일부저하로써 북조선인민의 생활수준은 더욱 높은수준으로 향상되고있다。

사회보험이 실시된이후 一九四八년三월까지에 북조선에서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가족이 국가의 혜택을 받은 역인원

주는 四백四十九만여명에 달하며 불과 三년전까지만하여도 일제와 지주 급 친일파들의 독점으로 되어있던 금강산 주을등 모든 명승 고적과 온천의시설이 근로인민들앞에 휴양소 료양소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북조선인민들은 이와같은 성과에 도취하지않고있으며 더 행복한미래와 부강한 조국을 전망하면서 인민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있다。

해방三주년간에 경제분야에 있은 이와같은 본질적 전변은 문화 사회생활에도 여실이 반영되고있다。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와서 북조선은 문맹과 무지와 암흑의 일제 식민지사회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는 사회로되었다。

문화는 어떠한 특수계급의 전용품이나 향락품이 아니라 전인민의 소유로 되였으며 모든 낡은 봉건적 일제식민지적 문화잔재는 숙청되고있으며 새로운생기발발한 신흥 민족문화가 인민속에서 꽃피어나고있다。

해방당시 일제가 남겨놓았던 二백三十만여명의 문맹자중 그 九一%이상인 二백十二만여명이 이미 문맹을 퇴치하였으며 남어지 불과 二十만미만의 문맹자도 금년내로 퇴치될 예정으로써 멀지않아 조선인민은 문맹없는 사회를 북조선에 건설하게될것이다。

一九四二년에 북조선에는 불과 一、三三九교의 소학교바께 없던것이 一九四七년十월현재로 三、〇〇八교로 되였으며 멀지않아 신학년도부터는 三、二三六교로 될것이다

一九四二년에 북조선에는 불과 四十三교의 중학교바께 없던것이가 一九四七년에와서 중학교수는 六七四교 즉 一九四二년의 十五배이상으로 증가되였으며 금년신학년도부터는 七二〇교로될것이다。 대학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에 하나도 없던것이 현재에와서 六교의 대학을 가지고있으며 신학년도부터는 十一교로될것이다。

교육망이 장성하였을뿐만아니라 일제시대에는 지주 기업가등 돈있는집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였던 교육기관이 오늘에와서는 전인민앞에 개방되어 현재북조선 전체학생수효의 四분지三은 로동자 농민등 근로인민의 자녀로되였다。

금년 신학년도를 앞두고 북조선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신학년도 준비에대한 전인민적 운동은 오직 문화와 교육의

인민의것으로 되었고 인민정권이 수립된 나라들에서만 가능한것이다。

북조선 문화발전에있어서 또하나의 거대한 성과는 무수한 인민간부들의 양성이다。 오늘 우리 북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각방면의 사업을 훌륭히 운영하는 무수한 인민간부들이 학교와 실지사업속에서 속속배출되고있다。

불과 五년전까지만하여도 일제의 종사리 심부름꾼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기사업의 주인으로 창조자로되였다。

북조선 인민들이 경제문화방면과 기타 모든부면에있에서 쟁취한 이와같은 성과는 북조선에서는 인민의 주권이 확립되였기대문이다。

쏘련군대가 일제를 구축하며 북조선에진주하는 첫날부터

모든정권을 조선인민에게 넘겨주었으며 조선인민으로하여금 자기의정권을 자유롭게 공고발전시키도록 보장하여준 때문이다。

북조선인민들은 쏘련군대가 지어주는 자유로운 조건을 백방으로 리용하여 자기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그것을 공고 발전시켜왔다。일제의 모든 통치기구를 전복하고 친일분자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수차의 민주선거를 통하여 각급인민정권기관들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였다。

불과 三년전까지만하여도 정치적 권리는 고사하고 왜놈들의 하급관청에까지도 마음대로 출입조차 할수없던 로동자 농민들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직접 정권기관을 관리하게되었다.

모든 일제적제도와 재판기관 사법기관들을 숙청하고 제반 민주주의 법률을제정하였으며 민주질서를 확립하였다。

인민정권이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여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한결과에 인민들의 정치적열정은 더욱 장성되었으며 인민위원회는 인민속에서 절대한 위신을가지게되었다。

또한 북조선민주개혁의 성과가 발전되며 인민경제가 발전됨에따라 인민정권은 자기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하게되었다。

이리하여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와서 인민위원회는 어떠한 힘으로던지 동요시킬수없는 확고부동한 조선인민의 주권기관으로써 헌법으로 확보되었다。

북조선인민들이 인민정권을 공고발전시키며 제반민주개혁

을 수행하여온 정치적 토대는 근로인민을 핵심으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었다。

북조선인민들은 해방직후로부터 근로인민을 핵심으로하고 조국의 민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력량을 결속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통일된 력량으로써 조국건설을위하여 투쟁하여왔다。

특히 지난一년간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과 자주독립을위하여 가속한 투쟁을 전개하여 오는가운데있어서 또는 북조선 민주건설을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지난四월의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와 六월의 남북협

의회 및 남조선 단선반대투쟁등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승리를위시하는것이다。

북조선 인민들이 쟁취한 성과는 여기에 끝치지않는다。

북조선인민들은 해방직후로부터 오늘에이르기까지에 쟁취한 모든성과들을 어떠한자도 다시빼아사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확고히하였다。

북조선인민들이 진정한 조선인민의헌법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채택하여 이것을 실시하게된것은 지난 一년간에있어서 가장중요한 최대의 력사적승리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은 북조선민주개혁의 모든 성과를 법적으로 확보한것이며 남조선인민의 전인민적 숙망을 반영한것이며、조선인민의 나갈방향을 뚜렷이 밝힌것으로

째 남북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 찬동속에서 二개월간이나 인민토의를거쳐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찬동되었으며 제五차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공화국 헌법에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선거준비가 진행되고있다。

해방직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조선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독립을위한 투쟁의 선두에서서 이와같이 싸워왔으며 싸우고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자주독립의 튼튼한 모든 토대를 철옹성같이 구축하여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조국은 아직도 남북두지역에 분리되어있는채 해방三주년을 맞이하게된다。

그것은 우리조국에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정책과

그들을 반들어주는 친일 반민족 반역자들의 책동에 원인된 것이다。

2、조선에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의 三년과 남조선

우리는 해방三주년을맞이하며 남조선정세를 총화할때 위선 남조선에서는 해방직후로부터 오늘에이르기까지 미군정이 계속되여왔다는것을 잊이말아야할것이다。 우리조국에서 일제가 구축된이후 남조선은 오늘까지 三년간이나 우리민족이 통치하는 지대가 아니고 외국인 미국사람들이 통치하는 지대로 존속하여왔다。 그러면 미국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조국땅에 드러온후 오늘까지 三년간 어떻게 남조선을통치하여왔는가? 국제정세에서 보는바와같이 약소민족을 예속화하며 세계지장화

장에 광분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팽창정책은 우리조국의 절반땅인 남조선에서도 가장 로골적으로 표현되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一九四五년九월 남조선에상륙하는 첫날부터 그들의 세계침략정책의 一환을 우리조국에대하여서도 실시하여왔다。 그리하여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에와서 미제국주의자들이 三년간의 군정을 실시하여온 남조선은 미국상품시장으로화하였으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모리배 테로들의 소굴로되였으며 심지어 패망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다시 우리조국을 침략하려는 발판으로되였다。 하ー지는 남조선 식민지화정책에 리용할목적으로 전일본총독고관염원(塩原) 수전(水田)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일제놈들을 초빙하여다가 고문으로하고있으며 일제는 본토에앉아서 공공연히 조선 재침략을 운운하게

되었다。 민족산업은 여지없이 파탄되었으며 인민은 기아성상에서 신음하게되었다。 인민에대한 온갖 자유와 권리는 최후의 일편까지 박탈되었으며 일제시대이상의 학살과 탄압이강행되고있다。

수많은「포고령」「군정령」이 남조선인민들을 결박하여 감옥과 유치장으로 끌고 갈뿐만아니라「무조건사살」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심지어 독도(獨島)에있어서와같이 남조선에있어서 우리의 부모형제 동포들은 미국비행사들의 폭격연습의 표적으로까지 희생되게되었다。 봉건적 토지관계는 그대로존속하며 로동자들에게대한 가혹한착취는 계속한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있어서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가 그대로 유지되고있을

뿐만아니라 많은부문에있어서 보호 조장되고있다。

해방三년을맞이하는오늘 남조선의 실제형편우어떠하가? 一九四七년에있어서 남조선이 강철생산은 一九四四년의 十분지一로 저하되었다。 방직공업은 一九四一년도에비하여 六분지一도 못되게되었다。 양말의 一례를들면 ○、九%바께 되지않하였다。

전체공장의 三분지一도 제대로 도라가지 못하고있다。 이와같이 민족산업이 파산됨과함께 미국 침략상품은 남조선을 휩쓸고있다。 一九四六년도 소위 차관에의하여 누가 썼는지도모르는 六천만딸라의 빚을 진것을 비롯하여 一九四七년도에만하여도 소위「민간물자보급계획」이라는 명목하에 一억三천만딸라의 잉여물자가 들어왔다。

남조선민간 무역정형은 가장축소한 재료에의하드라도 순전히 미국 월가상인들의 일방적인 무역으로써 一九四七년도 一년간에만하여도 남조선에서는 수입초과가 十一억원으로 되였으며 (一九四八년一월十八일 대동신문)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三월 一개월간에 인천항(仁川港)을통하여 들어온 외국상품만하여도 약 四억원의 수입초과를 보이고있다.

미독점 자본가들은 남조선에 상품만 가저다 팔아먹는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자본을 수출하게되었다. 즉 금년 六월초에 미군정은 남조선에 소위『미화증권제도』(米貨證劵制度)를 수립하여 미독점자본가들이 얼마든지 남조선에 자유롭게 투자하며 남조선산업을 독점할 길을 공개하여 놓았다. 이렇게 남조선에 상품과 자본수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독점 자본

가들은 남조선에서 원료 수탈을강화하고있다。五월十七일 합동통신 (合同通信) 에의하면 그들이 축소하여 발표한것만하여도 一년여에 미국은 남조선에서 九천三백여만딸라의 중석(重石) 五천여만딸라의 연(鉛)을 비롯하여 동(銅) 우크하람、철광등을 가져갔다。이와같은 미독점자본가들의 정책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비참한지경에 빠지고있다。금년 三월현재로 남조선에는 최소二백三十만이상의 실업자가 있으며 임금지수는 물가지수의 四분지一도 못된다。곡창 남조선에서나는 쌀은 모리배 미국상인들에이하여 국외로수출되며 조선인민은 미독점자본가들이 팔다남은 썩어진 밀가루를 배급이라고 받고있다。심지어 식량배급을달라고 진정하다하여 「군정령」위반으로써 군정재판에 회부되고있으며 실례로

서울 마포구 룡강동 김구환 김인숙등 三명은 량곡배급을 진정한죄로 군정재판에서 二년징역의 언도를 받았다。(七월二十七일 세계일보) 이반면에 모리배들의 창고와 항구에서는 쌀이 썩고있다。 六월十七일 조선중앙일보에의하면 인천(仁川)에서만도 一만二천가마니의 쌀이 썩었으며 기타 하이도(荷衣島)목포 등등에서도 수많은량곡들이 썩고있다。 이것은 미군정이 강제로 공출시킨 량곡을 인민에게 배급하여주지않고 모리배 미국상인들에게 상품으로넘겨주어 그들의 창고나 항구에 쌓아두고 시세를보다가 결국 썩이고 만것이다。 오늘 남조선 현실에나타난 모든실생활 현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들어와 실시한 三년간의 식민지정책의 결과이며 그들의 정책을 도와주는 남조선반동파의 반인민적 반민족적

최상의 구체적 표현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이 제아무리「민주주의」니「자유」니 또는 소위「조선독립」이니하고 성명과 광고에 광분하며 조선인민과 세계여론을 기만하려고 하여도 그들이 남조선에하여놓은 三년간의 사실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섬연히 조선에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을 증명하여주고있다. 사실은 결코 은폐할수없는 증거인것이다。 남조선 반동파들과 그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화정책은 지난一년간에 더욱 로골화하였다。 지난 一년간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이 공개적으로 남조선 식민지화의 정책을 실시하는 계단에들어선해이며 조선인민에게대한 파시스트적 학살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게된해이다。 지난 一년동안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의 조선식민지화

정책은 어떠한길을 걸어왔는가? 작년 재개되었던 쏘미공위에있어서 쏘련의 시종여일한 약소민족해방 정책과 조선인민의 민주력량으로써 자기네들의 야망을 도저히 달성할수없음을 알게된 미제국주의자들과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은 쏘미공위를 파탄시키고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구체적 준비계단에들어섰다。 특히 작년 九월二十六일 쏘미량군 동시철거에대한 쓰띠꼬브대장의 성명이 발포되어 전조선인민이 그의 실천을 거족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이 가장 정당한 제안을 거절하였을뿐만아니라 모쓰크바결정을 파기하고 쏘미공위를 결렬시킨후 조선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갔다。

그리하여 미국정권당국은 말라에 예속된 국가들을 조종하

여 조선인민의 참가도 없이 조선인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조선문제를 결정하였으며 소위「유·에」조선위원단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끌어왔다。 전조선을 식민지화할수 없음을 알게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반동파들의 원조를받아 우리민족과 국토를 분할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유·엔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반동파들과 야합하여 망국단선을 강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친일파 민족반역도당들이 남조선에서 망국단선을 어떠한 학살과 탄압과 기만과 허위술책으로 직행하였는가하는것은 이미세상이 주지하는바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절대다수가 거족적으로 반대배격하는 단선을 강행하기위하여 경찰을 총동원하며 새로 향보단을 조직하였을뿐만아니라 직접 자기의군대와 향

공대를 동원하였으며 군함까지 가져왔다。 망국단선을 강행하기위하여 무수한 「비상경계령」 「포고령」 들이 발표되었으며 심지어 길거리에 서있지말라는 법령까지 발표하였다。 투표를 거절하는 인민들을 죄수와같이 화물차로 실어다가 테로단 경찰로 포위하고。로골적인 감시를하며 강제로 투표시켰으며 심지어 경상북도 경주 갑구를비롯하여 많은선거구에서는 선거위원들이 임의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쓸어넣은 결과 등록된선거자수보다도 투표한수가 더많은 현상까지 생기있다。(五월二十八일 조선중앙일보) 모든 협잡과 허위와 탄압적 방법이 감행되였다。 제주도에서는 미군과 그배하의 「국방경비대」가 적수공권의 인민을 향하여 「전투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소위 「토벌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선거

가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아직까지 「소위 토벌기」이 계속되고있다。 리승만 김성수등과 그의 상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같이하여 소위 「국회」를 날조하여놓았다。 소위 남조선 「국회」에는 조선인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민전산하의 정당 사회단체는 말할것도없고 다수의 중간 우익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도 참가하지않았다。 소위 남조선 「국회」는 순전히 김성수 리승만등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의 기관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도구이다。

소위 남조선 「국회」가 오직 소수의 지주 자본가들만 대표하는 민제국주의의 도구이며 결코 조선인민을 대표할수없다는것은 소위 「국회」의 구성성분에서도 여실히 볼수있는것이다。 소위 「국회」 위원중에는 단일명의 로동자도 농민도없다

그반년에 八十四명의 지주 三十二명의 자본가 二十三명의 친일관리 五十九명의 탐위분자 모리배등이 소위 「국회」를 구성하고있다。 이러한 「국회」가 조선인민의 의사를 표시할수 없는것은 말할것도없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와 그주구 남조선 반동파들은 이와같은 괴뢰도구를 소위 「조선민족의 자유의사」를 대표하는것으로써 조선인민에게 강요할려고하며 「합법화」할려고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괴뢰「국회」를 미국발라에 예속된 국가들을 동원하여 승인시키게할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조선민족분렬과 남조선식민지화에대한 자기들의 음흉한 정책의 새계단을 준비하고있다。 이리함으로써 그들은 남조선에 영구히 주둔하며 남조선을 자기네의 군사기지로 만들고 남조선인민을 영원한 자기배의 노예로 할려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소위 남조선단독「정부」가 수립도되기전부터 우리민족의 흉악한 반역자 리승만을 시켜서「우리는 정부가 조직되면 미군은 계속하여 주둔하여 주기를 요구하겠다」고 말하게한것이 우연한것이아니며 또한 미국정권당국자들이「단일 조선정부가 요구하면 미군은 계속 주둔하리라」고 말하는것이 우연한일이 아니다。이것은 그들이 소위 망국「국회」를 통하여 어떠한 괴뢰「정부」를 수립할려고 하고있으며 그「괴뢰정부」가 장차 무엇을 할려고 하는것인가를 솔직이 말하여주는것이다。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알아야할것은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을 받드는 남조선의 친일파 민족반역자 리승만 김성수도당의 책동이 없었드라면 미제국주의자들도 그 정책을 실현하지는못하였으리라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의 도구로되어 그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는 리승만 김성수도당을 민족대대손손이 저주할 매국노로써 락인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정책을 받들어 우리조국을 팔아먹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정책과 책동은 이러하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결코 실현되지못할것이다。 그들의 정책은 이미 조선인민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앞에 여지없이 폭로되였으며 전조선인민은 그들의 흉악한 정책을 반대하여 오늘까지 거족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투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이 제아모리 남조선 「단선단정」을 합법화할 고책동하여도 전조선 인민의 절대다수가 이것을 반대배격하고있는것은 오늘세계가 다 아는사실로되었다。 지난 四월에 개최되

었던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는 수여만맹의 당원과 맹원을 대표하여 조선인민의 이름으로서 남조선단선 단정을 반대배격할것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실천되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이 설계하였던 남조선단선은 실지에있어서는 파탄되고말었다。오직 리승만 김성수등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들만이 그들의 상전의 비호하에 망국단선을 남조하였을뿐이다。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련석회의는 조선의 통일을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거대한 승리이다。남북조선련석회의는 조선인민이 나가는 길이 가장 정당하며 어떠한자도 이것을 막아내지못하리라는 것을 시위하였다。남북련석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방해만없으면 조선인민끼리 통일할수있다는것을 시위하였다。특히 지

난 六월二十九일부터 七월五일까지 七일간에 걸치어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의결정과 七월九일十일간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五차회의의 제결정 급 북조선 민전중앙위원회의 호소는 자주독립과 통일을위한 조선인민의 승리적투쟁을 지위하고있다。남북협의회의는 소위 남조선「국회」를 인정하지않는다는것을 재차 성명하였으며「비법적으로 조직된 소위 남조선「국회」와 이것을 토대로 남조선 괴뢰「정부」가 조직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폭로배격할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뿐만아니라 조선인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는「선거실시에 기초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조선대표자들로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결정하였으며「선거실시절차에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그러면 오늘 조선인민들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어떠한 투쟁과업을 앞에놓고 해방제二주년을 맞이하게되는가?

三、조국의 통일을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적 과업

인민회의제 차회의에서 북조선인민회의의 특별회의에서 찬동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실시에 관하여 보고하면서、김일성 위원장은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남조선에서 미국사람들이 ：책동한 결과에 우리민족을 영원히 분렬시길 위험과 남조선을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변화시킬 위협은 어

느대보다도 더 현실적인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사변들의 진행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방관하고만 있을수있겠습니가?
우리는 결코방관하고 있을수없습니다。 만일 조선인민의 대표자들인 우리가、우리조국에 조성된 이엄숙한 시기에 민주주의 조선통일과 독립의 기치를 높이들고 궐기하지않는다면 조선인민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지않을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도를 실현하여주는 남조선 민족반역자들이 조선의분렬을 영구화시키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할수있는 모든것을 다하여놓은 현하의 조건하에서 단지 「통일된 조선을 보기를 원한다」는 희망을 선포하는것만으로는 다가아닙니다」(김일성)

진정으로 우리조국의 통일과 자주독립을위하여 투쟁하는 전조선인민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의 민족분렬과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앉아서 방관하고만 있을수는 절대 없는것이다。

지난四월 남북련석회의에서 조선인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조선인민의 의사를대표하여 량군동시철거를 요청하였는데 대하여 쏘련정부는 언제던지 철거할준비가 여전히 다되어있다는것을 대답하여왔으며 또 그 실지실천으로써 북조선주둔군을 축소시켰슴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요청서에대하여 대답도 하지않을뿐만아니라 더욱 계속 주둔할것을 준

비하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이 이상 더 방관하고있는것은 반동세력을 강화하여주는것이며 그들에게 남조선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마껴버리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조국을 영원히 분렬시키는것을 방관하는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벗을수없는 미제국주의 식민지 노예의 쇠사슬을 씌워놓는것이다。

「…우리들은 통일적 민주주의 인민조선을 위하여 반드시 실지적으로 투쟁하여야되리라는것은 명백한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투쟁에서 물러선다면 조선인민은 매국노 리승만 도배들을 저주한것처럼 우리들은 저주하게될것입니다。」(김일성)

그러면 오늘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세하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의 식민지 노예화정책과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취하여야할 대책은 무

였인가? ―:나는 「우리조국에 조성된오늘의 이와같은 정치정세하에서 우리가 취하여야할 가장 절박한 대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을 실시하는것이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조선인민이 토의하고 찬동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은 조선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를위한 인민들의 지망을 표현합니다。」(김일성)

현하의 정세하에서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을 실시하여야할 불피성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소위 「국회」에서 조작하여낸 「헌법」과 이것을 조작하는 그들의 기도를볼때 더욱명백하여진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 리승만 김성수

도당들이 날조한 남조선 망국「국회」는、조선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며 우리조국을 영원히 식민지화하는 흉악한 반인민적 반동「헌법」을 조작하였다。

그들의 조작한 반동「헌법」에는 북조선과같은 인민의 자유와권리는 적연 명백히 표현되어있지않다。그들은 모든것은 다「법률에의하여」법률의 범위내에서 라는 막연한언사로 은폐하여 놓고있다。그들이 어떠한 법률로써 인민의자유와 권리를 제정할것인가하는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무수한「포고령」과「군정명령」을볼때 충분히알수있다。

그들은 소위「헌법」초안제一백一조에서「현행법령(現行法令)은 헌법에 저촉되지않는 한 효력을가진다」고 하였는바(헌법재정위원)은「현행법령」이라는것을「구한국법령 일본법령

미군법령」을 다 포함 한다고 성명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이전 일본법령과 무수한 미군정「법령」심지어 구한국시대의 법령까지도 도리어 이것을「헌법」으로 확보하여 조선인민을 영원히 일제시대나 오늘과같이 식민지 노예로결박하려는것이다。

그들이 조작한 소위「헌법」이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은 그속에「一八시간로동제」또는「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등 기본적인 민주개혁을 표시하는것이 단한마디도없는데서도 충분히 알수있다。

토지개혁이 실서되기는 고사하고 농민에대한 착취가 더욱 강행되며 八시간로동제나 사회보험제를 실시하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을 검거투옥하는 남조선 현실에서 북조선과같은 토지개혁 로동법령들을 포함하는 헌법을 제정

할수없는것은 당연한일이다。

그들이 만들어낸「헌법」은 결국오늘의 남조선 현실을 그대로 헌법화한것이다。 즉 오늘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착취와 탄압과 학살을「합법화」하자는것이며 그러한 정책을 계속실시할수있는 정부를 조작할려는것이다。

이 한「정부」만이 인민을 착취하는 반동파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그들의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에 부합되는것이기때문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 리승만 김성수도당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이와같이 식민지쇠사슬을 준비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에게 오늘과같은생활을 영원히 강요할수있는 쇠사슬을 만들고있다。 그것은 즉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이 만

일 가능하기만하다면 우리북조선 인민들의 해방이후 오늘까지 쟁취한 모든 민주성과를 박탈하려고 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주구들의 꾸며낸「헌법」으로써알수있는바와같이 그들은 조선농민에게 토지를 주지않을려는것이며 만일 가능하다고만하면 북조선토지개혁으로써 이미땅과 농촌의 주인이된 북조선농민들에게서 토지를 다시 박탈하여내려고할것이 명백하다。

그들은 북조선에있어서 조선인민의 손에돌아온 기업소 공장들을 다시 박탈할려고 할것이며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게서、八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를포함한 로동법령을 빼앗아내려고 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조선인민의 절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의 요구를 실현하기위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겠다는 결론을 또다시 짓게됩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실시를 선언한다는것은 아직 조선통일이 다 실천되었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닙니다。통일조선은 유일한 인민적 립법기관과 유일한 정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우리가 반드시 한거름더 나가야되리라고 인정합니다。그것은 우리가 헌법을 채택한 이후 헌법에기초하여 조선 최고인민회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된다는것입니다。

(김일성)

우리에게는 아직 전조선 최고립법기관이 없다。그렇기때문

에 우리는 남북조선 좌우익 중간을물론하고 진정으로 조선의 통일을위하여 투쟁하는 전체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조선최고 인민회의를 총선거로 수립하여야 할것이다。 로동자 농민 사무원 기업가 상인 종교가 각계각층의 대표를 망라하여 진정으로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할수있는 최고인민회의를 선거하고 여기에서 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하여야할것이다。 오늘 우리 조선인민앞에는 이와같은 거대한 민족적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미 우리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력사적 승리이다。 타국의 인민들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위하여 수십 수백년을두고 피를 흘리면서도 아직 달성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조선인민은 해방후 불과 三년미만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준비하고있다。 이미 발표된바와같이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규정은 일반、직접、평등 선거원측으로써 비밀투표에의하여 진행되는 가장 민주주의적 선거 규정이다。이 선거를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전인민은 총궐기 할것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위하여 거족적으로 선거에 참가하자 반동파들은 우리의 민주선거를 파괴하기위하여 각종요언과 책동을 다할것이다。 오늘 이엄숙한순간에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종노릇을하며 우리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으려는 일체반동분자들의 책동을 분해하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승리적으로 완수하자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호소를받들어 민전에서 공동추천

한 립후보자에게 다같이 투표하자! 이것이 민족해방의날 八·一五해방 三주년을맞이하는 조선인민의 영예로운 사명이다。

해방전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서 우리조국의 해방을위하여 二十여년을 반일 무장투쟁에 싸우던 우리민족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은 해방된오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건설의 선두에서서 우리인민을 지도하고있다。

전인민은 해방 三주년을맞이하면서 인민위원회와 그의지도자 김일성장군의 주위에 더욱 강철같이 뭉치어 조국의통일과 독립을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부강한건설을 위하여 싸워나가자 진정한조선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를 더욱강화하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일층강화하아가 우리조국 발전의 튼튼한 토대인 북조선 민주건설을 더

욱 튼튼히하며 승리의 신념을 굳게가지고 모든 분야에있어서 자기가맡은 사업의 능수가 되어야할것이다。 부강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튼튼한 경제적 토대가없이는 수립되지 못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八·一五 三주년과 헌법실시 최고인민회의 선거실시등을 무엇보다도 증산으로 기념하며 북조선 민주건설을 공고화하며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함으로써 기념하여야할것이다。

八·一五해방 三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조선 인민들은 우리들의 해방자 쏘련군대와 그의 위대한 수령이며우리의 해방의 구성인 쓰딸린대원수에게 열렬한 감사와 경의를 또다시드린다

오늘 우리가이와같이 찬란한 성과위에서 자유행복하게 민족해방의날을 맞이하는것도 위대한 쏘련군대와 쏘련정부의

결정적 역할과 원조가 있었기때문에만 가능하였던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조선인민의 완전자주독립국가로써 민주주의적으로 발전되려면 반드시 위대한 쏘련인민과의 영원한 굳은친선을 튼튼히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어야한다。 만일 위대한 쏘련의 원조가없섰다면 우리조국은 그 전부가 벌써 남조선과같이 이미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었을것이며 또한 장래에있어서도 오직 쏘련의 원조만이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해방三주년을 맞이하면서 위대한 쏘련인민과 쏘련군대와 그의 령도자 쓰딸린대원수에게 해방민족의 충심에서 울어나오는 감사를 또다시 드리게된다。

一、일본제국주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조선해방 八•一五 三

주년 기념만세!

二、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압박으로부터 우리민족을 해방시켜준 영웅적 쏘련군대만세!

三、쏘련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해방의 구성인 쓰딸린대원수만세!

四、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五、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인 위대한 북조선 민주개혁만세!

六、진정한 민주주의 력량을 총집결한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만세!

七、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와 그의 지도자이며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 영웅인 김일성장군만세!

조선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우리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거족적 구국대책

지난 七월十일에 북조선인민회의 제五차회의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찬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실시」에 관한 김일성위원장의 력사적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조선이 통일되기까지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지지찬동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을 북조선지역에서 실시할것」을 결정하였다。

이와동시에 북조선인민회의 제五차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북조선 인민회의 제五차회의의 력사적결정에 의하여 북조선인민회의 제二十九차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일을 一九四八년八월二十五일로 결정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제五차회의의 이력사적 결정이 발표되자 도시 농촌 어촌 직장 국가기관 학교 문화기관들은 물론하고 북조선 방방곡곡에서는 이력사적 결정을 지지찬동하는 군중대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군중대회들에서 출연한 북조선 각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 상인 종교인 수공업자 기업가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대표들은 이결정을 현하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하에서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절박하고 유일한 거족적 구국대책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북조선 적체인민들이 북조선인민회의 제五차회의의 결정을 열광적으로 지지찬동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따라

서 이결정이 조선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채택된 결정이라는것을 말하여주는 가장 빛나는 실례로 된다。

오직 평양시에서만하여도 북조선인민회의 제五차회의의의 력사적 결정을 지지찬동하는 경축대회에 三十여만대중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조국발전의 현계단에있어서 이력사적 결정이 조선인민의 축망을 어떻게 반영하여 주었는가하는 명백한 실례로된다。

우리조국에 조성된 어떠한 정치정세와 사태가 우리로하여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케하였는가 이문제에대한 정확한 대답을주기위해서는 남조선 단독선거와、관련하여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반드시 알아야할것이다。

남조선에 주둔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

동도배들의 방조하에서 소위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합으로써 우리조국에대한 식민지 예속화정책의 첫제단의 임무를 완성하였다。

美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에 진주한 첫날부터 우리조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화시키려는 음흉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런데 반드시 지적하여야할것은 그들이 이 음흉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천하기위하여서는 백방으로 민족반역자 친일파 반동세력을 조장하며 조선인 망국노들의 손을통하여 자기들의 음흉한 정책을 실현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에관한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파기할 때에도 조선인 민속반역자 매국노들을 통하여 반탁운동을 조직하였으며 결국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을 파기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에 예견된 조선문제의 해결의 첫계단인 쏘미공위당시에도 조선인 민족반역자 친일파 매국노들의 손을 통하여 공위사업을 파란시켰던것이다。

그들은 소위『의사표시』의 자유『의사표시』의 존중『광범한민주주의』등 조건하에서 수 삼백여개의 남조선 반동정당들과 유령단체들을 조선인 망국노들의 손으로 날조하여 쏘미공위를 결국 파란시키였던것이다。

이와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등 망국노들의 직접 원조하에서 우리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공정한 국제적협약인 모쓰크바三상회의 결정과 쏘미공위사업을 파탄시킴으로써 조선문제에대한 단독적 행동을

취하는길에 로골적으로 들어서게되였으며 우리조국에서 남조선을 분렬할 면 준비계단의 임무를 달성하였던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분렬에대한 면 준비 계단의 임무를 완성한후에 자기들의 음흉한 종국적인 조선식민지 예속화정책을 실현하기위하여 무엇을 하였던가

그들은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을 파기하고 쏘미공위사업을 결렬시킨이후에 일방으로는 남조선의 민주력량을 탄압 해산하는길에 들어섰으며 다방으로는 남조선 반동세력을 백방으로 조장하며 강화하는길에 들어섰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남조선민주주의 제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해산하며 그들을 지하로 구축하며 남조선 민주출판물들과 기관들을 파괴분쇄하였으며 남조선 민주진영의 지도자들과

애국적, 인사들을 대중적으로 투옥 학살하는길에 들어섰다。 다른방면으로는 남조선에 반동경찰제도를 수립하여 남조선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굴로 변화시키었으며 반동통치의 암흑세계로 변화시키었던것이다。

이와같이 그들은 망국적 단독선거의 준비계단으로 민주진영에대한 전고미문의 탄압을 감행한이후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상정하여 소위「유·엔소총회」의 결정의 미명하에서 「유·엔위원단」을 가장하여 그의 감시하에서 五월十일 망국단독선거를 강행하는데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단독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무엇을 정취하려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은 三八선을 계선으로하고 인공적으로 분렬된 우리조국의 림시적 분렬을 영구화하며 우리조국의 경제와 우리민족을 두 부분으로 분렬하며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변화시키려는것이며

그것은 둘째로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의 남반부에 친일과 민족반역자등 반동도배들의 통치를 확보하고 조국의독립과 통일과 자유를위하여 투쟁하는 민주세력을 진압하고 남조선에 자기들에게 충직히 순종할수있는 반동괴뢰정부를 수립하고 조선에대한 식민지 침략정책을 자기들의 맘대로 실현하려는것이며

셋째로 그들은 남조선 단독괴뢰정부를 수립하고 북조선에

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민주개혁의 제승리와 성과들을 탈취하고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을 일제통치의 암담한시대로 물러가게 하려는것이며

넷째로 그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등 자기들의 주구들로 괴뢰정부를 수립한이후에 조선식민지 예속화의 정책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실현할것이아니라 조선인 주구들과 매국노들의 손을통하여 실현하며 자기들은 조선문제에대한 아무간섭이없는듯한 기만적 술책으로 세계의 여론을 회피하려는것이며

다섯째로 그들은 남조선 단독선거를 통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한이후에 그정부의 요청에의하여 조선에주둔하는듯한 기만적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에 장기주둔을 목적한것이며

마즈막으로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단독괴뢰정부를 「전조선정부」로 가장시키고 그 「정부」를 유·엔총회내의 미국비호하의 거수가를 리용하여 승인한 이후에 그 반동매국노의 「정부」를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전국적 「정부」로 행세시킴으로써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의 운명을 자기들의 맘대로 처리하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조선인민은 이 망국적 단독선거를반대하여 거족적으로 궐기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리승만 김성수등을 조선인민의 천추의 죄인으로 대대손손이 타기할 망국노로 락인하였던것이다。 五월十일 망국적 단독선거를 직면하여 우리조국에 조성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위하여 금년 四월에 소집되었던 천여만명의 당원맹원을 망라한 五十六개의 남북조선 제정당사

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는 무엇을 결정하였는가?

첫째로 남북련석회의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미제국주의지들과 그들의 주구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날조하여낸 반인민적 망국선거로 규정하고 단독선거 뽀이꼬트를 선언하였던것이다。

둘째로 남북련석회의는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대표하여 조선으로부터 쏘미양군철거에대한 요청서를 쏘미양국정부에 또 내였던것이다。

쏘련정부는 남북조선 제정당 자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 요청서에대하여 미군과 동시에 철거하도록 준비되었다는것을 재차성명하고 그실천의 첫계단으로 북조선에주둔한 자기의 주둔군까지 축소시키였던것이다。

세째로 남북련석회의는 남북조선의 절대다수의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남조선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나서니만큼 이선거가 설사 실시된다하드래도 어떠한경우에 있어서든지 우리 조선인민의 의사를 표현할수없으며 또 이러한 선거는 오직 기만적선거로바께는 되지못하리라는것을 지적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않을것이며 또 이러한 선거로 수립하려는 어떠한 단독정부든지 승인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

넷째로 남북련석회의의 뒤를이어 소집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는 쏘미양국군대가 우리조국에서 철거한이후에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공동명의로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서 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림시정부를 즉시 수립하고 국가의 일체 정권과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일체 책임을 수립되는 림시정부가 가지며 이 정부는 자기의 첫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통일적 조선립법기관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된 립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며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조국에 조성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소집되였던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는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구국대책의 력사적 회합이였다。"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가 있은 이후 남

조선에서 조성된 정치정세는 우리조국에 어떠한 복잡한 사태를 회기시키였는가?

가장 중요한것은 남소선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전조선적 뽀이꼬트를 선인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결 이 실현된것이다。

천여만명의 당원들과 맹원을망라한 五十六개의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와 조선인민의 절대다수가 남조선 단독선거를 뽀이꼬트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것만큼 남조선 소위 「선거」는 평화적 자유분위기와 민주주의적 의사표시 자유의 원칙하에서는 실현될수 없었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 미주둔군사령부와 그들의 주구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무력과 테로와 강압과 폭행으로 「선

건」를 강제하였으며 무장경찰 미주둔 륙해공군병력 수十만의 경찰 테로단 테로청년단 향보단들을 동원하여 선거를 강압적으로 날조하였으며 위조하였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강압과 폭압과 테로로 강행되고 날조된 소위 선거를 조선인민은 승인하지않을것이며 또 이러한선거로 수립되는 어떠한 정부든지 인정하지않을것이다。

남조선 단독선거가 파탄된사실에 대해서는

첫째로 남조선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이 소위 선거가 지난지 근 三개월이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선거총결과를 발표하지못하고있으며 남조선 초유 자수효와 매국노 소위 립후보자들이 얻은 투표총수를 발표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이 말하여주고있으며

둘째로 남조선 단독선거가 파탄된사실은 남조선전역에서 일어난 五월十일 망국적 단독선거를반대하는 인민봉기가 말하여주고있으며 제주도와같은 지대들에서는 미군과 남조선반동경찰들의 비상동원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선거가 전혀 진행되지못한 사실들이 말하여주며

셋째로 남조선단독선거가 파탄된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소위 「조선대통령」매국노 노흉한 李承晩이를 투표에 참여시키기를 두려워 아무러한 투표도없이 당선된 소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낸 사실들이 말하여주고있다。

이와같이 남조선 단독선거는 거족적 반항과 보이꼬트에의하여 실제에서는 파탄되었다。 그렇기때무에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들이 「운운」 하는 선거결과는 위조이다。

그런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인 남조선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이 전조선인민의 거족적 반항에도불구하고 五월十일 망국적 단독선거를 강행하고 소위 「국회」를 창설한 오늘에있어서는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에서 제기한 구국대책의 방침들이 불충분하며 그방침만으로는 현하 조국에조성된、위기를 타개하지못할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쏘미양군의 동시철거에대한 쏘련정부의 정당한제의를 실천할데대한 남북련석회의의 요청서에대한 양국의 태도로 설명할수있다。

이미 아는바와같이 쏘련정부는 미군과 동시에우리조국에서 철거할데대하여 항상 준비되어있다는것을 재차강조하고 북조

선수둔군까지 축소시킨반면에 남조선 미주둔군은 조선에 장기주둔을 목적하고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 요청서에 대답까지도 하지않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앉아서 미군이 철거하기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렇지않으면 어떤결정적 구국대책의 딴방침을 취하겠는가?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전체조선인민은 누구를물론하고 우리조국에서 나가려고하지않는 미군을 나가도록하는 구국대책의길을 취하게 될것이다。

둘째로 남북련석회의는 쏘미양군철거이후에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명의로 정치협의회를 소집하고 전조선림시정부를 수립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이후의 남조선의사태는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우리는 〃쏘미양군이 철거한이후 정치협의회를 소집하고 전조선 림시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미군는 우리조국에서 철거하려하지않고 도리어 남조선괴뢰정부를 수립하고 남조선 장기주둔을 목적한 오늘에있어서 우리가 미군이 나가기를 앉아서 기다릴수있겠는가? 물론없을것이다。

셋째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추구들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소위 五월十일 망국적단독선거의 결과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망국노들로 결집된 소위 「국회」를 형성하고 그 국회를 전조선인민을 대표하는 「국회」로 가장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국회의 성분들에 로동자나 농민대표 한사람도 없는 그러한 국회를 전조선인민을 대표하는 국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국회를 폭로 배격하며 전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국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는가. 물론 조선인민은 이 단선을 마다 대책을 취하게 될것이다.

넷째로 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단독선거의 조작과에 소위 남조선 괴뢰정부를 수립하고 미국빵으로 자란 망국노 무리들을 대통령으로한 망국 괴뢰정부를 전조선정부로 행세시키고 수많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비호하에 있는 반동 무리들과 가구들 리용하여 승인시키고 하여 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하며 조선인민을 속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저 나 담화발표자 북조선인민을 부르짖고있겠는가 표명지 않으면 어떤구국 방침을 讚揚했을가 적정으로 북조선을 우세하는 조선을 구하려는 구국대책을 취하게 될것이다。우 조만구국의 남조선 조선인과 남조선민주반역자들과 그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에 아부하여 남조선 정부 괴뢰정부는 가능하기 만한다면 북조선 민주개혁의 제성과들을 박탈하며 북조선에 면돌아 개시 그들이 쟁취한 권리와 행복을 박탈하려고 할것이다。 이에대하여 남조선 인민에게 우리가 문제를 하여야 하겠는가[illegible] 우리가 취하여야할 구국대책의 결정적 방침이란 무엇인가 북조선인민회의 제 차회의에서 김일성위원장은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사변들의 진행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방관하고만 있을수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방관하고있을수없다。

만일 조선인민의 대표자인 우리가 조국에 조성된 이 엄숙한시기에 민주주의 조선통일과 독립의 기치를 높이들고 궐기하지않는다면 조선인민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지않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도를 실현하여주는 남조선 민족반역자들이 조선의분렬을 영구화시키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변화시키기위하여 그들이 할수있는일은 다하여놓은 현하의 조건하에서 단지 「통일된조선을 보기를원한다」는 희망을 선포하는것만은 부족하다。

인민의 선거를받은 우리는 통일적민주주의 인민조선을 위하여 반드시 실지적으로 투쟁하여야되리라는것은 명백한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이투쟁에서 물러선다면 。조선인민은 매국노리승만도배들을 저주한것처럼 우리를 저주하게될것이다。만일 우리가 이투쟁에서 완강하고 시종일관하게 강력히 투쟁한다면 조선인민은 우리에게 만강의 사의를 표할것이다」(김일성)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우리조국에 조성된 현하의 정세하에서 우리가 취하여야할 가장 절박한대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하는것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에 기초하여 전조선 최고인민회의를 선거하고 전조선 중앙정부를 수립함 으로써 조선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야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을 실시함으로써 무엇을 전취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국가대책의 제조건을 보장하여준다。

우리는 전조선인민이 지지찬동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에 기초하여 조선 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전조선중앙정부를 수립하게된다。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수립하는 중앙정부는 단독정부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선거를통하여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을 포괄한 전조선인민을 대표하는 통일적 중앙정부로 되게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정부는 전조선인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민

주주의적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로될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통일적정부의 수립은 어떠한 단독정부든지 조선민족의 명의로 행세하는 것을 허락하지않을것이며 또는 인정하지않을것이다。이와동시에 이 통일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조국의 독립과 통일과 자유를 옹호할것이며 우리조국에서 나가기를 싫어하는 미군을 나가게하는 조건을 촉진시킬것이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실시는 전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의 전취인 북조선민주개혁의 제성과들을 헌법적으로 확고시키게된다。
남조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조선인민에게 헌법적으로

확보시길 아무러한 성과의 전취도없다。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채태한헌법은 반인민적 반동헌법이며 아무러한 성과나 약속이나 법적확보도 주지못하는 기만적 선언서에 불과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절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의 요구를 실현하며 북조선인민들이 해바이후 三년동안에 쟁취한 위대한 주개혁들을 헌법적으로 확보하여주며 그개혁들에 의하여 그들이 쟁취한권리의 신성불가침을 선언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북조선인민회의 제五차회의 결정이 발표된후 전조선인민은 이력사적결정을 우리조국의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구국대책의 유일한결성으로 지지찬동하고 있는것이다。

직면한 八월二十五일 전조선 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우리민족발전의 력사에있어서 찬란한 새계단의 페지를 열어놓게될것이다。

조국을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이력사적선거에 한사람처럼 궐기하여 참가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들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거족적 구국투쟁의 기개와 조국애의 기개를 시위하게될것이다。 모두다 八월二十五일 전조선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선거에로!

一九四八年七月三十一日 印刷
一九四八年 八月 三日 發行
(定價九圓)

發行所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宣傳煽動部

平壤特別市里門里八五番地
印刷人 趙 容 徹

平壤特別市里門里八五番地
印刷所 勞動黨出版社
電話 四四一三
五〇〇九番

K33.6 發行部數 30.000部